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21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전략산업과	담 당 자	• 바이오 전략팀장 장일진 ☎032-440-3101 • 담당자 김정란 ☎032-440-31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K-바이오 랩허브」 가시화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총사업비 2,726억 원 투입,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지원·육성 인프라 조성 -

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 조성이 가시화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총 9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만이 심의를 통과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바이오 창업기업 입주공간,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산·학·연·병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 구축, 신약개발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혁신 바이오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중기부는 인천, 경남, 대전, 충북, 전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7월 인천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최적지로 최종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 인천시는 중기부 등과 매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관련시설 방문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자료 작성을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국비 1,095억 원 등 총 2,7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입주기업 건물 2개동과 입주기업의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건물 1개동을 건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통과는 30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참고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구축) '23~'25년 / (운영) '26년 ~ 31년
- 총사업비 : 2,726억 원(국 1,095, 시 1,550, 민 81)
- 구축면적 : 40,909m²(12,397평)
- 건축규모 : 입주기업동 2개, 커뮤니티동 1개
- 구축위치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 K-바이오 랩허브 조감도 >

